환경부 |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5. 8.(수) 12:00 (목요일 조간) 배포 2024. 5. 7.(화)

여름철 오존 집중관리로 국민건강 보호

- 오존 발생 원인물질 감축과 사업장 배출저감기술 지원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오존(O_3) 고농도 발생 시기(5월~8월)를 맞아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오존 발생 원인물질을 줄이고 대응요령 홍보를 강화하는 등 '여름철 오존 집중관리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연중 5~8월은 오존 농도가 가장 높고, 고농도 오존 또한 자주 발생하는 시기이다. 또한 기상청 기상전망에 따르면 올해 5월~7월 기간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아 고농도 오존이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환경부는 관계부처와 지자체, 민간이 협력하여 여름철 고농도 오존 발생을 집중관리한다.

먼저 오존 원인물질을 배출하는 핵심 배출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오존주의보가 자주 발령되는 지역의 질소산화물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해 방지시설 적정 운영과 굴뚝자동측정기기(TMS) 관리 실태 등을, 휘발성유기화합물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비산배출시설 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현장점검 결과, 관리가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밀폐·포집 시설 설치 및 최적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유증기 회수설비 운영 개선방안 등에 대한 기술지원을 병행한다.

또한,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감축을 위해 소규모 배출사업장(4~5종)에 대한 오염방지시설 설치를 지원(2,000개소)하고,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18만대), 무공해 건설기계 보급(전기굴착기 200대, 수소지게차 20대), 저녹스 보일러 설치(2.5만대) 등의 지원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아울러 대기관리권역별로 산업단지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무인기(드론), 이동식 첨단감시장비 등을 활용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상황을 여름철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감시한다.

다음으로 고농도 오존으로부터 국민 건강보호 조치를 강화한다. 고농도 오존 상황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오존등급(4등급) 예보를 하루 전에서 이틀 전까지로 확대*하여 발표한다.

* 오늘/내일 4등급(좋음-보통-나쁨-매우나쁨), 모레 개황 예보 → 오늘/내일/모레 4등급 예보

오존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되는 경우에는 에어코리아(airkorea.or.kr), 도로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고농도 오존 정보와 행동요령(실외활동과 과격한 운동 자제 등)을 신속히 전파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유치원·어르신 등 오존 민감·취약계층 보호시설에서는 고농도 오존 발생 시의 행동요령을 오존 홍보자료(영상, 포스터 등)를 활용하여 사전 안내하고, 지하철·케이티엑스(KTX) 역사와 수도권 광역버스 등에서도 오존 저감 및 고농도 오존 대응수칙 등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햇빛이 강하고 기온이 높아지는 5월~8월 기간에는 언제든지 고농도 오존이 발생할 수 있다”라면서, “고농도 오존 관리방안을 적극 추진하여 오존으로부터 최선을 다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오존 환경기준 및 예경보제.
2. 고농도 오존발생 시 행동요령. 끝.

담당 부서 < 총괄 >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	책임자	과 장	홍경진 (044-201-6860)
		담당자	서기관	송석섭 (044-201-7722)
			주무관	도태용 (044-201-7721)
	환경부 대기관리과	책임자	과 장	장현정 (044-201-6900)
		담당자	전문관	강택신 (044-201-6914)
			사무관	서혜인 (044-201-691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1 오존 환경기준 및 예·경보제

1 **(환경기준)** '93년부터 8시간 0.06ppm, 1시간 0.1ppm으로 관리

3 **(오존경보제)** '95년부터 시행, 1시간 농도 기준으로 발령

- **(목적)** 고농도 오존 발생시 회피를 통해 건강보호 및 저감조치 시행
- **(발령기관)** 광역자치단체(전국 17개 시·도)
- **(경보권역)** 17개 시도 141개 권역('24.4월 기준)
- **(경보단계)**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로 구분

구 분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
발령조건(농도)	0.12 ppm 이상	0.3 ppm 이상	0.5 ppm 이상

2 **(오존예보제)** '15년 4월부터 시행

- **(목 적)** 고농도 발생을 사전에 알려 국민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함
- **(예보기관)**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
- **(기간·횟수)** 4월 15일~10월 15일, 1일 4회
- **(예보권역)** 전국 19개 권역
- **(예보등급)** 4단계(좋음-보통-나쁨-매우나쁨)

< 예보 등급과 행동요령 >

구 분		등 급			
		좋 음	보 통	나 쁨	매우나쁨
예보기준 농도(ppm/hr)		0.030 이하	0.031~0.090	0.091~0.150	0.151 이상
행동요령	민감군	-	실외활동 시 행동 제약은 불필요하나 몸 상태에 따라 유의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가급적 실내에서 활동
	일반인	-	-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특히 눈이 아픈 증상이 있는 경우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	실외 활동 제한, 실내생활 권고

* 민감군 : 어린이, 노인, 호흡기·심장 질환자 등

붙임 2 **고농도 오존 발생 시 행동요령**

구 분		행동요령
1		○ 오존 예보 및 경보 발령 상황 수시 확인 * 에어코리아(www.airkorea.or.kr)
2		○ 실외 활동과 과격한 운동 자제 ○ 특히, 노약자·어린이·호흡기질환자·심장질환자 주의
3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실외수업 자제 또는 제한
4		○ 승용차 사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 * 자동차는 시동 초기에 대기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므로,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 이용
5		○ 스프레이, 드라이클리닝, 페인트칠, 시너 사용을 줄임 * 유성페인트 대신 수성페인트를 사용하거나, 도장 시 스프레이 대신 붓이나 롤러를 사용하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감소
6		○ 한낮의 더운 시간대를 피해 아침이나 저녁에 주유 * 아침이나 저녁에 주유 시 대기로 유실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이 감소하여 연료비도 절감